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AI 조기발견 위해 닭·오리 함께 사육

충남 천안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빠르면 다음달 안에 AI에 민감한 닭을 오리 사육장에서 오리와 함께 사육키로 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닭은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면 3~7일에 증상이 나타난 뒤 100% 폐사하지만 오리의 경우 육종오리는 외부로 감염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산란오리는 산란율이 감소할 뿐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혈청검사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돼 '고병원성 AI 감염 확인'에 한달 안팎의 시일이 걸린다.

시는 따라서 오리 사육시설 안에 10마리 안팎의 닭을 함께 길러 AI 감염에 민감한 닭의 상태를 파악, 사육오리들의 감염여부를 조기에 알아 내 초기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로 했다.

천안지역에서는 68개 농가가 31만마리의 오리를 사육해 마리수에서 충남도내 점유율이 62%에 이른다.

천안시는 또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병원

성 AI가 발생한 풍세면 지역과 겨울철새들이 주로 서식하는 성남면(광기천 상류), 병천면(병천천 일원) 등 3개 권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 관리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농가 1공무원 담당제'를 시행해 매일 전화예찰 등 개별 관리하고 저병원성 AI백신 접종과 유산균면역 강화제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지역 야생조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조류 분변을 통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천안 = 연합뉴스

중국

오리에서 H5N1형 AI 발생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7일 남부 광둥성 광저우(廣州)에서 오리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 이들 오리가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농업부는 이날 AI 발생에 따라 이미 3만 6,130수의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광저우 Panyu



지역에서 모두 9,800수의 폐사한 오리가 발견됐다.

현지 당국은 처음에는 오리의 폐사 원인이 가축 전염병으로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은폐 의혹을 낳았다.

한편 홍콩 특구 정부는 9월 17일 광저우의 AI 감염지역 반경 24km 내에서 사육되는 오리 고기와 알 등의 홍콩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 베이징 = 신화사/뉴시스

◆ 6월 도계가격 1998년 이래 최고가 기록

중국 전국 450개 축산물 가격 표본을 조사한 결과, 2007년 6월 가금산물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산닭, 도계의 평균가격은 각각 7.91위엔/kg, 13.30위엔/kg, 13.05위엔/kg으로 전월과 비교할 때 각각 4.4%, 6.3%, 5.9%씩 상승했다.

그 중 계란과 도계가격은 1998년 이래 최고가격이며, 산닭 가격은 역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전국의 산란용병아리, 육계용병아리 평균가격은 각각 2.88위엔/수, 2.82위엔/수로 전월대비 각각 8.7%, 8.5%씩 상승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계란, 산닭, 도계가격은 각각 40.0%, 38.9%, 37.1%씩 상승했으며, 산란용병아리와 육계용병아리 가격은 각각 54.0%, 98.6%씩 상승했다.

- 중국농업부

◆ 캐나다산 가금류 반입 금지

캐나다산 가금류가 중국에 반입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23일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에서 발생한 H7N3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중국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고 신화통신이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농업부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캐나다산 가금류 상품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3일 이후에 입국된 캐나다산 가금류는 반송하거나 소각기로 했다.

항공, 선박, 기차 등 운송수단을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온 상품은 밀봉처리해 반송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의 감시아래 소각처리한다.

- 아시아경제

말레이시아

AI 청정국 선언으로 수출 재개 희망

말레이시아는 세계 축산물 생산 허브를 목표로 지난 9월 10일 AI 청정국 발표를 하며 가금육 수출 재개를 희망했다.

지난 6월에 H5N1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많은 걸프국가들에 계란과 계육을 수출하는 대국이였다.

- 로이터

EU위원회

2007~13년의 공동동물위생정책안 합의

EU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2007~13년의 공동동물위생정책(Community Animal Health Policy : CAHP)에 관한 안에 합의했다.

이것은 동물위생에 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치료보다 예방을'을 내걸고 가축질병의 발생 감소, 질병발생 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 등에 중점적으로 대처하게 돼 금후 동물위생대책의 틀이 되어 있다.

CAHP 제정의 배경으로는 EU 시민의 동물위생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물위생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동물위생은 사람의 건강, 식품의 안전성, 경제발전 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EU위원회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 가축질병의 위협을 감소시켜 시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HP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2013년에는 동물위생, 식물검역관련예산을 4억5천만 유로에 달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이 끝날 때까지 EU이사회, EU의회에 의해 CAHP안의 합의를 예정하고 있으나, 그 때까지의 사이에 EU위원회는 CAH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위생은 환경, 농축산업, 무역 등의 많은 다른 분야가 관여돼 있어 다른

공동정책과 연결한 통일적 조치가 필요해 내년에는 이 조치를 채용한다고 하고 있다.

- AW

잠비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임을 발표

잠비아 보건사회복지부 국가질병센터의 프로그램관리관인 Avdoulie Caara는 잠비아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100% 청정하다고 지난 9월 6일 확인 발표했다.

하지만 잠비아는 방대한 늪지대를 가지고 있고 이는 이동 철새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 alAfrica.com

독일

고병원성 AI 감염 확인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농장 두 곳에서 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인됐다고 일간 디 벨트 인터넷판이 지난 9월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에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농장을 중심으로 독일 사상 최대 규모인 20만5,000마리 정도의 오리가 살처분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에른주 동부 니테나우 농장에서 이미 8일 약 2만5,000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됐고, 근



교 브룩의 농장에서도 18만 마리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들 농장은 모두 8월 말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에어랑엔 부근 농장과 동일 회사 소속으로 니테나우와 브룩 자치체가 가금류의 혈청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를 찾아냈다.

니테나우와 브룩 당국은 사육 가금류가 아직 발병하지 않았으나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서울=뉴시스

러시아

서부버지니아 가금류 수입금지 철회

- CFIA

미국산 가금육의 가장 큰 소비처인 러시아는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4월에 조치한 서부 버지니아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철회한다고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질병의 발생이 종식되고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류, 부화란, 가금육, 가금육 생사품, 가금 사료의 수입이 허용됐다고 러시아 관리가 발표했다.

- 로이터

캐나다

고병원성 AI 발생

CFIA(캐나다방역당국)는 Saskatchewan에

서 발생한 H7N3형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9월 29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인체 감염을 유발하는 AI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H7N3형 AI는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

CFIA는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에서 3km 내외의 모든 가금류 및 가금축산물의 이동을 금지할 것이고, 10km까지 safeguard를 설치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현재 CFIA는 최근 가금류, 가금축산물, 수송 장비 등의 이동내역을 조사하면서 추가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 중에 있다.

일본

캐나다산 가금육 수입 금지

일본은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3)가 발견됨에 따라 캐나다산 가금의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 로이터

어떤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러면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

- 데일 카네기